

#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김동희 · 이상화 · 배영실 · 하이경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Factors, Acculturation Stress and Resilience on Depression among Mother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Kim, Dong-Hee · Lee, Sang-Hwa · Bae, Young-Sil · Ha, Yi-Kyung

Colla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mother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Methods:** For this study, 159 participa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re recruited through administrative units of the B. & U. Metropolitan City and G. Province. Data related to acculturation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August 2014 and analyzed through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WIN 22.0 for Windows program. **Results:** The participants had a moderate level of acculturation stress ( $2.43 \pm 0.75$ ; range 1~5) and resilience ( $4.74 \pm 1.14$ ; range 1~7). About 58% of the participants had depression. The result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mothers-in-law's depression was affected by resilience ( $\beta = -1.17, p < .001$ ), acculturation stress ( $\beta = 0.85, p = .026$ ), perceived economic level ( $\beta = -0.83, p = .016$ ), difficulty in physical activity ( $\beta = -0.62, p = .027$ ), relationship satisfaction ( $\beta = -0.51, p = .035$ ), and education level ( $\beta = -0.48, p = .033$ ).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35%.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d the need to lower the level of depression by enhancing resilience and reducing acculturation stress among mother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Future research to reduce depression among mother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consider how to enhance resilience and reduce acculturation stress.

**Key Words:** Elderly, Depression, Acculturation, Psychological resilience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노년기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부정적 정서 경험에 의한 반응성 우울의 발생이 흔하다[1]. 노년기에 경험하

는 우울은 국내·외적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약 50% 정도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주된 원인으로서는 여성, 노화로 인한 신체 및 인지적 기능저하, 신체적 질병, 친밀한 사회적 접촉의 감소, 우울 과거력 등이다[1,2]. 특히 여성노인과 같이 인구·사회학적 자원 부족과 신체·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경우 생활사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울을 유발할 수

**주요어:** 노인, 우울, 문화적응, 탄력성

**Corresponding author:** Lee, Sang-Hwa

Colla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 50612, Korea.

Tel: +82-51-510-8338, Fax: +82-51-510-8308, E-mail: 1967shl@naver.com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의 지원하에 수행되었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Jun 17, 2015 | Revised: Sep 3, 2015 | Accepted: Sep 14,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있다[3]. 노년기에 발생하는 우울은 다른 발달단계에서의 우울과 달리 노화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으로 생각하거나[4],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우울 증상의 발견이 늦어지거나 방치되어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4,5].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어려움 외에 외국인 며느리를 맞은 후 타문화를 바라보는 부정적 외부의 시선과 외국인 며느리의 생소한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6,7]. 한국인 며느리에 비해 외국인 며느리는 이주를 목적으로 결혼을 선택한 경우가 많고 낮은 평균연령으로 인해 아내 및 며느리로서의 역할이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8].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한국문화를 전수하기 위해 생활전반에 관여함으로써 일반가정 시어머니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고부 갈등과 그로 인한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9]. 내·외직 자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심하게는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75.0%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더욱이 다문화의 경우 고부간의 첨예한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의 차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장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소통의 단절을 가져와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한다[8-10].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가 생활전반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경험은 우울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다른 문화 속에 놓여진 대상자들, 즉 이민자[11]나 유학생[12]을 중심으로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우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는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응과정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에 중요한 지지자이자 갈등원일 수 있는 시어머니의 정서적 건강은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 건강에 중요한 영향 요인일 수 있다[13].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이주여성과 그 남편 및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14]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문화적응경험[6]에 관한 질적 연구와 고부관계의 질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확인[15]한 연구가 있었다. 다문화 가정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구가 한편[10] 있었는데, 외국인 며느리와 일상에서 주로 부딪히는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며느리와의 동거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우울 영향 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 특성,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만을 고려하여 향후 우울 개선을 위해 활용 가

능한 개인적 특성, 탄력성 등 자원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였다.

탄력성은 부정적 스트레스와 역경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탄력적인 사람은 변화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부정적 감정을 견디고 관계성을 유지함으로써 심신의 균형을 잃지 않고 위기를 잘 견디게 하는 등[16]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노년기 우울 영향요인으로 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탄력성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행위의 실천[17], 심리적 안녕[18]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울 감소[19] 등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탄력성이 노년기 우울,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부족과 신체적 취약성 등으로 남성보다 생활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결혼이주 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에 대한 열등감, 며느리의 도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결혼 이주여성에게 무조건 잘해주라는 사회적 요구 등으로 한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보다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에 노출된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 및 우울 정도를 살펴보고 우울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과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과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 영향 요인을 규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여성을 며느리로 맞은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 영향요인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B, U광역시 및 G도 지역에 거주하며 외국인 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하여 한 달 이상 동거한 시어머니로, 본 연구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하고 정신 및 인지기능 이상, 한글 해독 능력, 청각기능에 이상이 없이 설문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One-way ANOVA, 효과크기 .2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양측검정으로 투입하였을 때 산출된 적정 표본 수는 159명이었다[20]. 총 163명에게 자료 조사를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 4명을 제외한 총 15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조사지로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과 우울로 구성된다.

### 1) 일반적 특성

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요인들에 대한 문헌 고찰[1,2,6,10]을 기초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 질병 관련 특성, 사회적 관계 특성, 외국인 며느리의 특성 및 며느리와의 관계만족도 특성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1994년 Sandhu와 Asrabadi[21]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IS)'에 기초하여 Chung과 Park[22]이 내국인의 입장에서 개발한 도구를 Chung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편견 및 차별감 지각' 차원, '문화적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차원, '일상생활의 불편' 차원을 가지며 총 11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평가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개발당시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 3) 탄력성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Wagnild와 Young[23]이 개인의 성향에 초점을 두고 적응유연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구입(50USD)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스트

레스나 위기의 상황적 요구들에 대한 개인의 성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도구로 개인 역량(personal competence; 자기 신뢰, 호기심, 역량, 자존감, 통제성) 10문항과 삶과 자신에 대한 수용(acceptance of self and life; 낙관성, 삶의 의미) 4문항의 두 가지 차원을 가지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7점)의 7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4점에서 98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점수에 따라 14~56점은 매우 낮음, 57~64점은 낮음, 65~73점은 중등도 낮음, 74~81점은 중등도 높음, 82~90점은 높음, 91~98점은 매우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개발당시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 4) 우울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Yesavage 등[24]이 개발한 30문항의 자가 보고형 Geriatric Depression Scale을 Keel[4]가 우리나라의 노인에 맞게 표준화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 단축형(GDSSF-K)을 Kee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인 문항 10개와 부정적인 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며 '아니오'인 경우는 1점, '예'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하고, '예'인 경우는 역 점수화하여 처리하여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심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 4. 자료수집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PNU IRB/2014\_02\_HR)을 받아 2014년 4월 9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B광역시 및 G도는 전국 결혼이민자의 분포에서 서울경인 지역을 제외하고 광역시 및 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지역[25]일 뿐 아니라 다문화 연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연구 빈도가 낮은 U광역시를 포함하여 G 지역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7,8,16]. 각 지역의 다문화센터장, 지역행정구 담당자에게 대상자 모집 공고 부착 및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구하였다. 승인된 지역에 부착된 모집공고를 보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 163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먼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대상자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됨

과 본 연구의 목적 외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들 중 직접 설문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연구자들이 직접 읽어주고 대상자가 원하는 응답에 기록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자료 4부를 제외하고 총 159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이후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과 우울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과 우울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Kruskal-Wallis H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확인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 예측요인 일반적 특성 중 우울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탄력성을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 후 회귀표준화잔차 분석 및 Durbin-Watson 지수를 통하여 회귀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 연구결과

### 1.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대상자의 56.6%가 대도시에 거주하며 평균 연령은  $69.4 \pm 7.42$ 세였으며, 67.9%가 초등 이하의 학력이었다. 대상자의 7.5%만이 자신의 경제수준을 높게 인식하며, 80.5%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64.2%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67.9%는 마음을 터놓는 대상과 한 달에 1번 이상 만나고 있었다. 외국인 며느리와 동거기간은 평균  $44.0 \pm 40.45$ 개월로 73.6%가 5년 이하였다. 대상자의 36.5%에서 며느리의 한국어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생활 전반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들로 44.0%에서만 며느리와 관계를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상자의 11.3%가 며느리의 문화를 인정한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Residence	Metropolis	90 (56.6)
	Micropolis	21 (13.2)
	Rural	48 (30.2)
Age (year)		69.4±7.42
	≤64	40 (25.2)
	65~70	48 (30.2)
	≥71	71 (44.6)
Education level	None	39 (24.5)
	Elementary school	69 (43.4)
	≥Middle school	51 (32.1)
Perception of economic level	Highly	12 (7.5)
	Average	99 (62.3)
	Lower	48 (30.2)
Chronic disease	No	31 (19.5)
	Yes	128 (80.5)
Difficulty in physical activity	No	57 (35.8)
	Yes	102 (64.2)
Meeting time with someone (time/yr)	≤6	18 (11.3)
	7~12	33 (20.8)
	≥13	108 (67.9)
Cohabitation period (month)		44.0±40.45
	≤12	38 (23.9)
	13~60	79 (49.7)
	≥61	42 (26.4)
Daughter-in-law's Korean-level	High	65 (40.9)
	Moderate	36 (22.6)
	Low	58 (36.5)
Relationship with daughter-in-law	Satisfied	70 (44.0)
	Somehow	53 (33.3)
	Unsatisfied	36 (22.6)
Ethnocentrism	Disagree	18 (11.3)
	Somehow	105 (66.0)
	Agree	36 (22.7)

### 2.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과 우울 정도

Table 2는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 및 우울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평균은  $2.4 \pm 0.75$ 로 ‘거의 그렇지 않다’보다는 높고, ‘보통이다’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일상생활의 불편’이  $2.4 \pm 0.79$ 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적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2.4 \pm 0.75$ , ‘편견 및 차별감 지각’  $2.3 \pm 0.91$ 의 순이었다.

**Table 2.** Level of Acculturation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N=159)

variable	n (%)	M±SD	Range
Acculturation stress		2,4 ±0,75	
Inconveniences of living		2,4 ±0,79	1~5
Perceived discrimination		2,3 ±0,91	1~5
Conflict due to value differences		2,4 ±0,75	1~5
Resilience		4,7 ±1,14	1~7
Personal competence		4,8 ±1,17	1~7
Acceptance of self and life		4,7 ±1,18	1~7
Very high	6 (3,8)	91,0 ±0,00	91~98
High	8 (5,0)	84,5 ±2,51	82~90
Moderate high	26 (16,4)	77,2 ±2,10	74~81
Moderate low	34 (21,4)	69,4 ±2,88	65~73
Low	27 (17,0)	61,0 ±2,49	57~64
Very low	58 (36,5)	46,1 ±7,86	14~56
Depression		5,5 ±3,65	
Normal	66 (41,5)	2,0 ±1,40	1~4
Mild depression	65 (40,9)	6,7 ±1,34	5~9
Sever depression	28 (17,6)	11,1 ±1,35	10~15

탄력성 평균은 4.7±1.14로 ‘보통’에서 ‘동의 한다’의 사이로 대상자의 74.9%가 ‘중등도 낮음’ 수준이었다. 우울의 수준은 대상자의 40.9%가 경증우울 상태였고, 17.6%는 중증 우울로 임상적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 3.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과 우울의 차이

Table 3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과 우울 수준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며느리의 한국어 수준, 며느리와의 관계 만족정도, 자문화 중심적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수준을 높게 인식한 경우(F=10.16,  $p=.006$ ), 며느리의 한국어 실력이 좋은 경우(F=7.91,  $p=.001$ ), 며느리와의 관계 만족정도가 좋은 경우(F=24.93,  $p<.001$ ), 자문화중심 태도가 약한 경우(F=8.08,  $p=.018$ )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다.

탄력성 수준은 속마음을 터놓는 사람과의 만나는 횟수, 자문화 중심적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속마음을 터놓는 사람을 연 1~6회 만날 때(F=6.27,  $p=.044$ ), 자문화 중심적 태도가 중등도일 경우(F=6.10,  $p=.047$ ) 탄력성이 낮았다.

우울 수준은 시어머니의 학력,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활동에 어려움 정도, 며느리와의 관계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시어머니의 학력이 무학일 때(F=3.60,  $p=.030$ ), 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할 경우(F=13.14,  $p=.001$ ), 활동에 어려움 정도가 많을 경우( $t=2.70$ ,  $p=.008$ ), 며느리와의 관계 만족정도가 낮을 경우(F=10.57,  $p<.001$ ) 우울 수준이 높았다.

### 4.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과 우울간의 관계

Table 4는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 결과이다.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적상관관계( $r=.39$ ,  $p<.001$ )를, 탄력성과 부적상관관계( $r=-.43$ ,  $p<.001$ )가,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탄력성과 부적상관관계( $r=-.25$ ,  $p=.002$ )가 있었다.

### 5.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 영향요인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며느리의 한국어 수준, 며느리를 맞은 기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제거되었으며, 시어머니 학력,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며느리와의 관계 만족, 문화적응 스트레스, 탄력성에 대한 회귀 분석에서

**Table 3.** Differences of Acculturative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cculturation stress (1~5)		Resilience (1~7)		Depression (0~15)	
			M±SD	$\chi^2$ or t or F (p)	M±SD	$\chi^2$ or t or F (p)	M±SD	$\chi^2$ or t or F (p)
Residence	Metropolis	90 (56.6)	2.4±0.70	0.96	4.7±1.07	0.61	3.5±0.37	1.21
	Micropolis	21 (13.2)	2.3±0.65	(.385)	4.5±1.00	(.543)	3.7±0.81	(.385)
	Rural	48 (30.2)	2.5±0.87		4.9±1.33		3.8±0.55	
Age (year)		69.37±7.42		1.76		0.41		0.20
	≤64	40 (25.2)	2.6±0.81	(.176)	4.9±1.16	(.664)	5.3±3.41	(.817)
	65~70	48 (30.2)	2.3±0.74		4.7±1.13		5.4±3.90	
	≥71	71 (44.6)	2.4±0.71		4.7±1.15		5.7±3.65	
Education level	None	39 (24.5)	2.5±0.64	0.78	4.5±0.98	1.43	6.7±3.51 <sup>a</sup>	3.60
	Elementary school	69 (43.4)	2.5±0.78	(.462)	4.9±1.20	(.243)	5.4±3.87 <sup>b</sup>	(.030)
	Others	51 (32.1)	2.3±0.79		4.7±1.16		4.7±3.25 <sup>c</sup>	a > c
Perception of economic level †	Highly	12 (7.5)	2.1±0.88 <sup>a</sup>	10.16	4.9±1.02	0.29	2.8±2.13 <sup>a</sup>	13.14
	Average	99 (62.3)	2.3±0.68 <sup>b</sup>	(.006)	4.8±1.18	(.865)	5.2±3.66 <sup>b</sup>	(.001)
	Lower	48 (30.2)	2.7±0.78 <sup>c</sup>	a > b > c	4.7±1.10		6.8±3.51 <sup>c</sup>	a > b > c
Chronic disease	No	31 (19.5)	2.5±0.73	0.40	4.7±1.15	-0.16	5.2±3.74	-0.49
	Yes	128 (80.5)	2.4±0.76	(.689)	4.8±1.14	(.874)	5.6±3.64	(.624)
Difficulty in physical activity	No	57 (35.8)	2.4±0.70	0.48	4.8±1.13	-0.60	4.5±3.48	2.70
	Yes	102 (64.2)	2.5±0.78	(.632)	4.7±1.15	(.547)	6.1±3.64	(.008)
Meeting time with someone (time/year) †	≤6	18 (11.3)	2.2±0.79 <sup>a</sup>	2.90	5.3±0.86 <sup>a</sup>	6.27	5.1±3.59	0.94
	7~12	33 (20.8)	2.5±0.45 <sup>b</sup>	(.235)	4.4±1.17 <sup>b</sup>	(.044)	5.9±3.35	(.624)
	≥13	108 (67.9)	2.5±0.81 <sup>c</sup>		4.8±1.15 <sup>c</sup>	a > b	5.5±3.77	
Cohabitation period (month)	≤12	38 (23.9)	2.4±0.53	0.36	4.3±1.03	3.52	5.6±3.51	0.77
	13~60	79 (49.7)	2.5±0.84	(.697)	4.9±1.18	(.052)	5.2±3.79	(.465)
	≥61	42 (26.4)	2.4±0.75		4.9±1.09		6.1±3.54	
Daughter in law's Korean-level	Low	58 (36.5)	2.7±0.72 <sup>a</sup>	7.91	4.5±1.14	2.85	6.2±3.64	2.24
	Moderate	36 (22.6)	2.4±0.71 <sup>b</sup>	(.001)	4.9±1.15	(.061)	5.6±3.65	(.110)
	High	65 (40.9)	2.2±0.72 <sup>c</sup>	a > c	4.9±1.11		4.8±3.60	
Relationship satisfaction	Unsatisfied	36 (22.6)	3.1±0.79 <sup>a</sup>	24.93	4.4±1.12	2.49	7.7±3.54 <sup>a</sup>	10.57
	Somehow	53 (33.3)	2.4±0.57 <sup>b</sup>	(<.001)	4.9±1.05	(.087)	5.5±3.52 <sup>b</sup>	(<.001)
	Satisfied	70 (44.0)	2.1±0.65 <sup>c</sup>	a > b > c	4.8±1.19		4.4±3.35 <sup>c</sup>	a > b > c
Ethnocentrism †	Disagree	18 (11.3)	2.0±0.95 <sup>a</sup>	8.08	4.9±1.51	6.10	5.1±3.76	0.52
	Somehow	105 (66.0)	2.5±0.71 <sup>b</sup>	(.018)	4.6±1.07	(.047)	5.5±3.73	(.771)
	Agree	36 (22.7)	2.5±0.72 <sup>c</sup>	a < b	5.1±1.07		5.8±3.43	

a, b, c=Scheffé test; † Kruskal wallis.

**Table 4.** Relationship among Acculturative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N=159)

Variables	Acculturative stress	Resilience
	r (p)	r (p)
Depression	.39 (<.001)	-.43 (<.001)
Acculturative stress		-.25 (.002)

Durbin-Watson 통계량이 1.78으로 2에 근접하므로 잔차의 자기 상관이 없고 회귀 표준화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 분포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인자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1~1.47로 0.1 이상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을 예측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15.43, p<.05$ ) 설명력은 35%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탄력성( $\beta=.37$ ), 문화적응 스트레스( $\beta=.18$ ), 경제수준인식( $\beta=.16$ ), 며느리와의 관계( $\beta=.16$ ), 활동에 어려움( $\beta=-.15$ ), 시어머니 학력( $\beta=.14$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 중 탄력성이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장시간 단일문화권의 가치 속에서 살아온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들이 자녀의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며느리의 문화를 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울의 영향요인들을 확인하여 우울 증대 프로그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외국인 며느리와 동거하고 있는 본 연구대상자의 58.5%가 우울하였다. 측정도구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46.0%[26]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중년이민여성[27]의 84.0%나 다문화 가정 남녀 노인[10]의 75.0%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Miller와 Chandler[27]의 연구대상자는 이민당사자였고 Kim과 Kim[10] 연구의 시기는 2008년으로 1990년 이후 시작된 국제결혼이 2003년부터 급격히 증가[25]한데 반해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적 지원의 준비가 부족했던 상황 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가 다문화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다른 취약집단보다 여전히 높은 우울빈도를 나타내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

석을 시행한 결과 탄력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제수준 인식, 활동에 어려움, 며느리와의 관계만족도, 시어머니의 교육수준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설명력은 35.0%였다. 이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탄력성이었다. 중년여성이민자의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우울의 예측변수로 탄력성을 보고한 Miller와 Chandler[27]의 연구에서 탄력성이 정서적 활력, 유연함과 적응을 도움으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침을 보고한 바 있다. 60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 영향 요인을 분석한 Jeon[28]의 연구결과 탄력성이 스트레스 다음으로 우울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탄력성은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여 노인의 우울 감소를 위해 탄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노인의 우울 영향요인을 규명하지는 않았지만 뉴욕 거주 지역사회 노인 106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탄력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Well[29]의 연구에서 탄력성과 우울 간 0.58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본 연구와 선행연구결과 탄력성이 우울 감소에 강력한 영향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약 75.0%가 중등도 보다 낮은 탄력성 수준으로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두 번째의 설명력을 가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2.43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농촌 지역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평균을 2.74점으로 보고한 Lee[15]의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를 하위차원별로 보면 ‘일상생활의 불편’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적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과 ‘편견 및 차별감 지각’의 순이었다. Lee[15]의 연구에서 ‘문화적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일상생활의 불편’,

**Table 5.** Factors Predicting Depression

(N=159)

Predictors	B	SE	$\beta$	t	p
(Constant)	15.45	2.33		6.63	<.001
Resilience	-1.17	0.21	-0.37	-5.51	<.001
Acculturative stress	0.85	0.38	0.18	2.25	.026
Difficulty in physical activity	-0.62	0.28	-0.15	-2.23	.027
Perception of economic level	-0.83	0.34	-0.16	-2.43	.016
Education level of mother-in-law	-0.48	0.22	-0.14	-2.15	.033
Relationship satisfaction	-0.51	0.24	-0.16	-2.13	.035

$R^2=.38, Adj. R^2=.35, F=15.43, p<.05$

Durbin-Watson=1.78; SE=standard error; Adj.  $R^2$ =adjusted  $R^2$ .

‘편견 및 차별감의 지각’의 순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최근 매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해 접할 기회가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대상자의 11.3%만이 며느리의 문화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시집 사람이 되기 위해 시어머니가 친정의 문화를 내려놓았듯이 며느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이 낮은 외국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문화나 결혼 문화에 대해 준비 없이 온 며느리는 생활 전반에서 주변인으로 생활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Seong과 Hwang[9]의 연구에서도 일반가정에 비해 다문화 가정에서 며느리와의 갈등이 높다는 보고나 본 연구대상자의 44.0%에서만 며느리와의 관계 만족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에 비추어 외국인 며느리로 인해 시어머니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예측변수로 Kim과 Kim[10]의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며느리와의 관계 만족도, 건강 상태는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Kim과 Kim[10]의 연구에서 의논상대, 배우자 유무도 우울의 영향변수로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이는 Kim과 Kim[10]은 다문화 가정의 시아버지를 포함한 반면 본 연구는 남편을 제외하고 며느리의 문화를 가장 자주 접할 시가족으로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의 차이로 배우자의 부재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4]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로서 자식을 포함한 마음을 터놓는 대상과의 만남 횟수나 사회적 모임의 횟수나 기간에 따라 우울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고했으나[10]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국제결혼의 형성과정에서 이미 위축될 수밖에 없는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가 그 생활상에 대한 시시콜콜한 얘기를 자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일 수 있어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는 방식의 대처로 참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이든 지역사회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애정 욕구가 채워지고 지역사회 공동체에 소속감 갖게 된다[30]. 인적 지지망은 탄력성을 향상시키므로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29]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들을 위한 지지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센터 등 일반 지역사회 체제는 외국인 며느리와의 갈등과 같은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가정환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자조

집단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시어머니의 아들이자 외국인 며느리의 남편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은 조사하지 않았다. 추후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가 마음을 터놓는 대상으로 혹은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외국인과 결혼한 아들의 특성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 문화 전수자이자 한국문화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어머니가 경험하고 있는 심리·정신적 어려움의 정도를 확인하고 향후 시어머니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상당함을 확인하였고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 변수로서 탄력성의 영향력을 확인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 결론 및 제언

최근 국제이주 결혼여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가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는 노년기 상실에 더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 정도와 우울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절반 이상이 우울하였으며, 그 영향요인은 탄력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제수준 인식, 활동의 어려움, 며느리와의 관계 만족도, 시어머니의 교육수준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35%였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우울을 개선시키기 위해 탄력성은 높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추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REFERENCES

1. Gameiro GR, Minguini IP, Alves TCdTF. The role of stress and life events in the onset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Revista de Medicina(São Paulo)*. 2014;93(1):31-40. <http://dx.doi.org/10.11606/issn.1679-9836.v93i1p31-40>.
2. Djernes, JK.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depression in populations of elderly: A review.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2006;113(5):372-387. <http://dx.doi.org/10.1111/j.1600-0447.2006.00770.x>
3. Oh SE, Ko Y.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and related factors in Korean elderly: Focused on socioeconomic status and family suppor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5;26(2):140-149. <http://dx.doi.org/10.12799/jkachn.2015.26.2.140>
4. Kee BS.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Journal of*



-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996;35(2):298-307.
5. Kim YJ. Comparison of health habits,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thinking by gender between elders living alone and those living with other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09;16(3):333-344.
  6. Seong EY, Kwon JE, Hwang ST.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nflict of mother-in-law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rural area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2;17(3):363-383.
  7. Kim KH, Park GS, Sun JJ. Stress of mothers-in-law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009;21(6):639-651.
  8. Yang JH, Park HJ, Kim SS, Kang EJ, Byun SH, Bang JS. Adaptation experience to family of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2;42(1):36-47. <http://dx.doi.org/10.4040/jkan.2012.42.1.36>
  9. Seong EY, Hwang ST. A study on the conflict of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coping strategies, mental health in multicultural famil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3;18(1):243-256.
  10. Kim JE, Kim HM. Depression among elderly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3;33(1):143-162.
  11. Kim HS. Impacts of acculturation &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Health and Social Science*. 2012;32:43-74.
  12. Jin XY, Choo SY, Lim SM. The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on, ethnic grou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4;20(1):1-18.
  13. Sung MO, Lee HJ. The influences of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on the family relationship of the femal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2002;18:185-206.
  14. Kim KS, Kim MK. Maternal acculturation proc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4;44(1):1-12. <http://dx.doi.org/10.4040/jkan.2014.44.1.1>
  15. Lee EH.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mental health of Korean rural mothers-in-law with foreign daughters-in-law: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daughters-in-law and mothers-in-law.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2011;10:105-133.
  1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the road to resilience [Interne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cited 2015 March 07]. Available from: <http://www.apa.org/helpcenter/road-resilience.aspx>
  17. Perna L, Mielck A, Lacruz ME, Emeny RT, Holle R, Breitfelder A, et al. Socioeconomic position, resilience, and health behaviour among elderly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2012;57(2):341-349. <http://dx.doi.org/10.1007/s00038-011-0294-0>
  18. Felten BS. Resilience in a multicultural sample of community-dwelling women older than age 85. *Clinical Nursing Research*. 2000;9(2):102-123. <http://dx.doi.org/10.1177/10547738000900202>
  19. Jung MK, Lee KM. A path analysis of stress, depression, optimism, and resilience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0;30(2):629-642.
  20. Erdfelder E, Faul F, Buchner A. G-power: A general power analysis program.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1996;28(1):1-11.
  21. Sandhu DS, Asrabadi BR.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1994;75(1):435-448.
  22. Chung SD, Park HJ.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ale to measure acculturation stress of parents-in-law who have a foreign daughter-in-law.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11;63(2):319-336.
  23. Wagnild, G. M., & Young, H. M.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993;1(2):165-178.
  24. Yesavage JA, Brink TL, Rose TL, Lum O, Huang V, Adey M, et 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983;17(1):37-49.
  25. Jeon KT, Chung HS, Kim YS, Kim YR, Joo JS, Kim H, et al.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Research Report, Seoul: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January. Report No.: 2012-59.
  26. Lee SH, Jun SS. Effects of an empowerment program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for low-income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12;21(4):311-320.
  27. Miller AM, Chandler PJ. Acculturation, resilience, and depression in midlife women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Nursing Research*. 2002;51(1):26-32.
  28. Jeon YJ. The effect of the elderly's stress on depression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5;24(2):219-236. <http://dx.doi.org/10.5934/kjhe.2015.24.2.219>
  29. Wells M. Resilience in rural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The Journal of Rural Health*. 2009;25(4):415-419. <http://dx.doi.org/10.1111/j.1748-0361.2009.00253.x>
  30. Maier H, Klumb PL. Social participation and survival at older ages: Is the effect driven by activity content or context? *European Journal of Aging*. 2005;2(1):31-39.